삼성전자, 34년만에 세계 TV시장 제패

판매수량·매출 모두 1위…소니, LG 등 제쳐

삼성전자가 지난해 34년만에 세계 TV 시장을 제패했다.

14일 시장조사기관 디스플레이서치와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LCD TV와 PDP TV, 브라운관TV 등을 합친 전체 TV 시장에서 판매 수량 점유율 10.6%를 기록, LG전자 9.8%, TTE 9.4%, 필립스 6.8%, 소니 6.2%,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또 매출 규모에서도 14.2%의 점유율로, 소니 11.3%, LG전자 8.6%, 파나소닉 8.5%, 필립스 8.3% 등을 누르고 정상에 올랐다.

삼성전자가 세계 TV 시장에서 매출과 판매 수량 모두 1위를 차지한 것은 1972년 TV사업에 뛰어든 이래 34년만에 처음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시장조사기관에서 업체별로 TV 판매실적을 집계, 발표하기 시작한 것이 몇 년 되지 않지만 삼성전자가 매출과 판매수량 모두 1위를 차지한 것은 34년만에 처음"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지난해 세계 LCD TV 시장에서도 판매수량 점유율이 13.4%로, 필립스 13.0%, 소니 11.6%, 샤프 11.3%, LG전자 7%를 제치고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이에 비해 LCD TV 매출 점유율은 소니가 16%로, 삼성전자(15%)와 샤프(11.5%)를 누르고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PDP TV 시장에서는 파나소닉이 29%의 매출 점유율로, LG전자 16.0%, 삼성전자 14%, 필립스 10%, 히타치 8%, 파이오니어 7% 등을 누르고 정상을 지켰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 세계 TV시장 점유율 (매출액 기준, 단위:%)

	LCD	PDP	브라운관	종합
1	소니(16.0)	파나소닉(29.0)	TTE(12.0)	**삼성(14.2)**
2	**삼성(15.0)**	LG(16.0)	**삼성(11.0)**	소니(11.3)
3	샤프(11.5)	**삼성(14.0)**	LG(9.0)	LG(8.6)
4	필립스(10.5)	필립스(10.0)	KONKA(5.0)	파나소닉(8.5)

자료:디스플레이서치

유전자변형식품 유통실태 알아보니

GMO식품 표시제 정착돼간다

〈유전자 재조합〉

콩·옥수수관련 가공식품 4,521건 중 5건 규정 위반

성분 검출 23.7%는 대부분 기준이내로 상태 양호

유전자변형 식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중에 유통중인 콩·옥수수 등 곡물과 관련 가공식품 5개중 1개에서 유전자재조합(GMO) 성분이 검출됐으나 대부분 기준 이내인 것으로 조사됐다.

GMO식품 표시규준을 위반한 사례도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1년 7월 GMO식품 표시제 시행 이후 2002년~2006년 5년 간 시중 유통되는 콩과 옥수수 및 관련 가공식품(스낵류, 두부류, 음료류, 시리얼류, 영·유아식, 조미식품 등), 쌀 가공식품 중에서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가 없거나 '비유전자재조합원료 사용' 등으로 표시된 식품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식약청은 이 기간동안 본청 및 6개 지방청을 비롯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시행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유통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식품 4천521건 중에서 3천446건에서는 GMO성분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전체 조사대상의 23.7%인 1천70건에서는 기준치 이내이긴 하지만 GMO성분이 검출됐다.

또 5건은 GMO표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사후관리 조치됐다.

표시제 시행이후 유전자재조합 성분 기준이내 검출비율도 지난 2002년 29.7%에서 2004년 19.1%, 2006년 12.8% 등으로 갈수록 감소 추세를 보이는 등 GMO 식품 표시제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식품위생법상의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GMO 식품 표시제를 도입하면서 구분유통 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한 수입산 원료나 생산·유통과정에서 가공식품에 비의도적으로 GMO성분이 3% 이하로 들어가 있으면, GMO식품이라고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식약청은 올해도 GMO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검사를 통해 규정 위반 식품이 유통되는 사례를 차단함은 물론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대상 제품을 계속 늘려 나갈 방침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GMO= 생산성 향상과 상품의 질 강화를 위해 본래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생산된 농산물로 보통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식품이라 한다. 질병에 강하고 소출량이 많아 식량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장기간 섭취할 경우에도 인간에 무해하다는 점이 분명하게 검증된 바가 없으며, GMO 품종으로 인해 생태계가 교란되는 등 환경재앙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GMO 식품을 보는 시각은 미국과 서유럽 간에 크게 다르다. 유전자 기술이 앞선 미국의 경우 슈퍼마켓에서 팔리는 식품의 절반 이상이 GMO를 함유하고 있으며, 미국 국민들의 절대 다수는 GMO 식품이 안전하다고 신뢰한다. 그러나 서유럽 국가의 환경단체들은 GMO 곡물을 '프랑켄슈타인 식품'이라고 부르며 기피하고 있다.

작년 예·대금리 인상폭 비슷

예금 0.46%P↑ 대출 0.45%P↑

지난해 상반기에 예금금리가, 하반기에는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결국 비슷한 수준의 인상폭을 기록했다.

통상적으로 콜금리가 오르는 과정에서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먼저 오르는 경향이 있지만 지난해에는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동안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금리(저축성수신) 인상폭은 0.46%포인트로 대출금리 상승폭인 0.45%포인트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예금금리는 2005년 12월말 4.14%에서 2006년 12월말 4.60%로, 대출금리는 5.74%에서 6.19%로 올랐다. 그러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상하반기 움직임은 서로 달랐다. 예금금리가 상반기에 0.34%포인트 오르는 동안 대출금리는 0.24%포인트 인상되는데 그쳤다.

특히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주택담보대출금리는 0.12%포인트 하락했다. 상반기 중 2월과 6월에 콜금리가 인상됐음에도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면서 콜금리 인상을 역행한 셈이다.

콜금리가 한차례(8월) 인상됐던 하반기에는 대출금리 인상폭이 0.21%포인트로 예금금리 인상폭 0.12%포인트를 크게 앞질렀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금리는 0.40%포인트나 올랐다. /연합뉴스

투기과열지정 2012년까지 5년 연장

투기과열지구지정제도와 공공택지내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제도가 5년간 연장돼 2012년까지 시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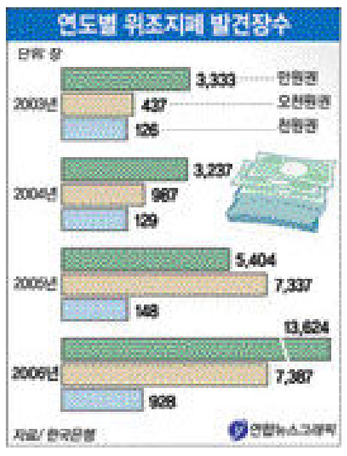
건설교통부는 14일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2002년에 도입돼 올해 4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투기과열지구지정제도를 5년간 연장해 2012년 4월18일까지 시행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가 연장되면서 이미 지정돼 있는 투기과열지구는 건교부가 해제하지 않는 한 별도 절차없이도 계속 투기과열지구로 남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는 경우,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건교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안은 또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주택을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도 5년 연장해 2012년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공공아파트 후분양 로드맵을 1년 연장하기로 한 것을 반영, 공공주택을 40% 공정 이후에 분양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연합뉴스



작년 위조지폐 2만 1,939장

전년보다 70%이상 급증

지난해 위조지폐 발견장수가 전년보다 7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발견된 위조지폐는 총 2만1천939장으로 2005년(1만2천889장)에 비해 9천50장(70.2%) 늘었다.

이 가운데 1만원권 위폐는 1만3천624장으로 전년(5천404장)보다 2.5배 증가했다.

특히 1만원권 위폐의 절반 가량인 6천221장은 성인오락실에서 발견됐다.

그러나 작년 7월초부터 '바다이야기' '황금성' 등 사행성 성인오락실 제조업체 등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되면서 오락실에서 발견된 1만원권 위폐는 상반기 5천893장에서 하반기 328장으로 대폭 줄었다. 해마다 급증했던 5천원권 위폐는 위조방지장치를 보강한 새 5천원권 발행으로 전년보다 불과 50장 늘어난 7천387장에 그쳤다.

5천원권 위폐는 2003년 437장에서 2004년 987장, 2005년 7천337장으로 급증했었다.

1천원권의 경우 서울·구리지역의 셀프세차장, 동전교환기 등에서 위폐가 다량 발견돼 전년(148장)보다 5배 가량 급증한 780장이 발견됐다. /연합뉴스

뉴질랜드 쇠고기 시판

기 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14일 서울 구로구 시흥동 홈에버 본사에서 제인 쿰스(Jane Coombs)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뉴질랜드 자연이 키운 쇠고기'의 입점을 기념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뉴질랜드 쇠고

/연합뉴스

정부, 美 '뼈 쇠고기' 수입 공세 대비 착수

검역강화… 태스크포스팀 구성

조만간 뼛조각 뿐 아니라 아예 뼈가 포함된 모든 쇠고기를 수입하라는 미국측의 파상 공세가 시작될 것에 대비, 정부가 본격적으로 대책 마련 작업에 들어갔다.

최근 한미 쇠고기 기술 협의 과정에서 확인된 미국측의 태도로 미뤄, 미국의 주장이 단순히 "작은 뼛조각은 봐 달라" 정도에서 그칠 성격이 아니라는 인식이 정부 안에서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이 수 개월내 국제수역사무국(OIE) 광우병 위험등급 평가 시점을 전후로 '뼈 포함 쇠고기' 수입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검역 전문가들 위주로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은 OIE의 지침과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검역(SPS) 협정 등 쇠고기 검역 관련 국제 규정을 면밀히 분석해 미국측의 예상 주장에 대한 논리를 준비하는 한편, 다른 수입국들의 동향을 점검하며 국제 공조 가능성도 검토한다.

특히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 미국의 광우병 위험에 대한 OIE의 평가 결과가 공개되면 회원국으로서 이를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8일 열린 한미 쇠고기 기술협의에서도 OIE 판정을 근거로 한 미국의 위생조건 재협상 요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뼈 포함 쇠고기(bone-in beef)' 관련 OIE 지침에 대한 해석차와 이에 따른 논쟁을 막는 방안을 미국측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구체적 방법을 문서를 통해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만약 미국이 받은 OIE 광우병 등급 판정을 두고 양국이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 여부를 논의하게 되더라도, 적어도 '뼛조각 논란'의 사례처럼 문구 해석 차이가 주요 갈등 원인이 되는 것은 막아보자는 취지다.

정부는 이처럼 전면 쇠고기 개방 공세에 대비하는 한편, 현 시점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수 검사 원칙을 고수하고 관리수의사를 모두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등 오히려 쇠고기 검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국세청 인력양성 나섰다

여성 보직 할당제 등 도입

신입 9급직원 발탁 승진도

국세청이 신입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우수 직원을 선발해 육성하는 등 인력 양성에 발벗고 나섰다.

국세청은 14일 근로장려세제(EITC)나 사회보험 징수업무 수행 등 복지세정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조직역량 제고를 위해 인재 발탁과 양성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최근 직원 정기인사에서 처음으로 심층 인터뷰와 과제 분석능력 등 역량평가를 실시해 본청에 전입할 6급 직원을 선발했으며, 이들에 대해 인사상의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향후 지방청의 우수직원에 대해 본청 근무후 지방에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보직을 관리함으로써 핵심인력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 인력의 28%(4천903명)를 차지하는 여성 인력의 중요성을 감안해 여성승진 목표제나 여성보직 할당제 등 여성간부 양성방안도 적극 시행해나가기로 했다.

조만간 교육을 마치고 임용될 신입 9급 직원 594명 중에서도 여성이 300명에 달해 남성(294명)보다 많았다.

국세청은 이들 신입 9급 직원중 성적이 우수하고 능력이 뛰어난 20명을 선발해 일정한 보직을 거치도록 하는 등 '특별 관리'를 통해 육성하고 발탁 승진도 단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국세공무원교육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희망근무 분야와 관서를 반영해 보직을 부여하기로 했다.

제갈경배 국세공무원교육원 지원과장은 "앞으로는 9급에서 출발해도 고위층까지 오를 수 있는 길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미디어 균형발전 기여 광고주 선정

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회장 기노창)는 지난 13일 '미디어 균형발전 기여 광고주'와 '신문광고 대폭 감소 광고주(업종)' 등을 선정·발표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한국광고데이터(KADD)가 지난해 국내 100대 주요 광고주를 분석한 결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을 비롯한 10개사가 '미디어 균형발전 기여 광고주'로 선정됐다"며 "이번 자료를 토대로 향후 미디어시장 개방에 따른 미디어간 고른 광고 활동에 대한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 균형발전 기여 광고주=▲금호아시아나그룹 ▲농협중앙회 ▲삼성그룹PR ▲에쓰오일 ▲유한양행 ▲포스코 ▲현대모비스 ▲HP ▲(주)LG ▲SK텔레콤

◇신문광고 대폭 감소 광고주=▲농심 ▲대한항공 ▲동서식품 ▲동아제약 ▲롯데칠성음료 ▲하이트맥주 ▲삼성카드 ▲KT ▲KTF ▲LG카드 ▲영화제작·배급사(업종) ▲증권(업종)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KT&G 새담배 레종 레드 출시

KT&G의 3대 주력브랜드 중 하나인 '레종'이 12일 또 하나의 패밀리브랜드인 '레종 레드'를 선보였다.

'레종 레드'는 기존 패밀리제품이 각각 타르 1mg(레종 블랙), 3mg(레종 블루·레종 후레쉬)으로 구성돼 있는 점을 감안, 타르 5.5mg의 제품으로 채택했으며 풍부하고 깔끔한 맛이 특징이다. 소비자 가격은 갑당 2천500원.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